

직거래 유통 업체(경)채류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 및 위해성 평가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최근 유통 과정의 기술적 발달로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운영체제를 통한 직거래가 새로운 농산물 유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오프라인 직거래를 담당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직거래 농산물의 경우 유통 중간단계가 생략되면서 농민들에게 농산물의 안전 관리를 일임하고 있고, 직거래 농산물 특성상 중소농가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시스템 미비에 따른 안전성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됨.
-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직거래 농산물 중 부적합 빈발 상위 10품목의 농약 잔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시민의 먹거리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II 연구개요

- 기 간 : 2025. 1. ~ 2025. 10.
- 대 상 : 온/오프라인 직거래 유통 업체류 및 업체채류 10품목('23~'24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발생 품목)
- 향 목 : 잔류농약 480종

III 연구결과

- 유통 플랫폼에 따른 분석 결과, 직거래 애플리케이션 판매 농산물 49건 중 35건(71.4%),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 농산물 26건 중 14건(53.8%)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고, 각각 4건(8.2%)과 2건(7.7%)의 농산물에서 부적합이 발생함.
- 전체 직거래 농산물의 품목별 잔류농약 분석 결과, 업체류 56건 중 37건(66.1%), 업체채류 19건 중 12건(63.2%)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업체류 4건(7.1%), 업체채류 2건(10.5%)에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함. 이는 2024년도 부산지역 경매 및 유통 농산물의 부적합률(업체류 2.5%, 업체채류 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적합이 발생한 품목은 상추 1건, 들깨잎 1건, 취나물 1건, 쑥갓 1건, 쪽파 1건, 부추 1건이었으며 이중 해당 품목에서 사용이 제한된 농약(PLS)을 사용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상추(Methomyl), 쑥갓(Tebuconazole), 쪽파(Methabenzthiazuron)로 나타남. 부적합 발생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판매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플랫폼 판매 농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강화, 생산자 및 판매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교육실시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정책연계방안

- 향후 농산물 안전 관련 정책 수립 및 먹거리 유통 과정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공

V 활용계획

- 직거래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 판매자의 교육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자료 제공
- 새로운 먹거리 유통 형태에 따른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